

김정은 체제 5년, 북한경제 주요 변화와 시사점

김 현 일 (통일사업부, icarus@kdb.co.kr)

- ◆ 김정일 사망(11. 12. 17)후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5년간 경제부문에 일부 변화 시도
 - (경제정책) 경제·핵무력 건설병진노선(‘13), 경제개발구(‘13),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16)
 - (경제실적) 경제규모 증가폭 감소, 무역액 증가 속에 對中무역의존도는 급증(90%)
- ◆ 5년간 정치체제 안정화 구축 完了,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 新정부 등과 관계개선 가능성

□ (경제정책)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 ‘경제발전 5개년전략’ 및 ‘경제특구·개발구’ 발표

-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13.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관련 기술 강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함께 다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발표

북한의 시대별 경제정책 변화

구분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선군경제건설노선*	경제·핵무력 건설병진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군사·경제 병진노선		

*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

-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기존의 한정된 지역에서 벗어나 북한 전지역에 중국의 경제개발구 모델을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정책 추진
 - 기존 경제특구는 각 개별법하에 폐쇄적으로 운영한 반면, 경제개발구는 경제개발구법(‘13)을 기초로 진출기업과 북한기업과의 발전적 연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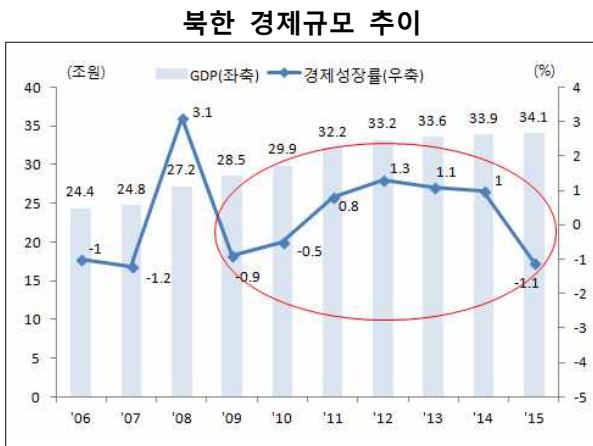
북한의 시대별 특구정책 변화

구분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특구 정책	중앙급 특구 정책	특구 + 경제개발구 정책
경제특구	나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	나선과 금강산 확대 운영
경제개발구	없음	청진, 혜산, 만포 등 21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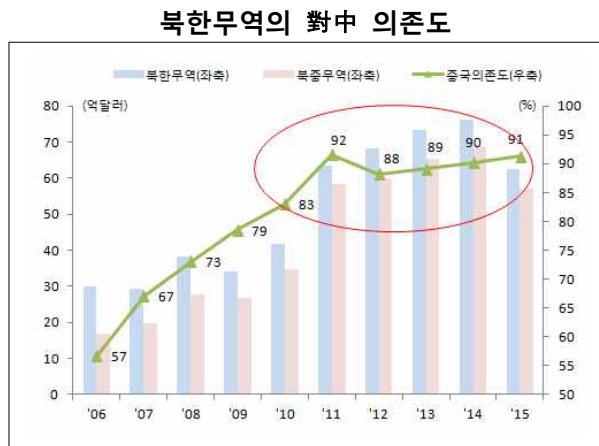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16. 5월 7차 당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발표 (80년대 ‘인민경제전망계획’ 중단 이후 처음)
 - 경제의 자립성·주체성 강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수산물 생산량 증가, 경공업 발전 등

□ (경제실적) 5년간 북한경제규모는 증가폭의 감소, 무역실적은 50% 증가하였으나 對中무역 의존도는 7%p 상승하여 91% 수준임

- (경제규모 증가폭 감소) 폐쇄적 경제운용으로 경제규모 증가폭 감소
 - 5년간('11.15년) GDP는 13% 증가에 그침 ('06년 24.4조 → '10년 30조로 23% 증가)



자료 : BOK



자료 : KOTRA, KITA

- (對中무역의존도 증가) 5년간 북중무역액 증가분은 북한 총무역액 증가분을 상회
 - 북한 총무역액은 약 50% 증가(20.8억달러, '10년 41.7억달러 → '15년 62.5억달러), 북중무역액 증가분(22.5억달러, '10년 34.6억달러 → '15년 57.1억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對中무역의존도는 91% 수준('10년에는 83%)에 달함
 - * '15년 북한무역액 감소(△6.2억달러)는 석탄, 원유 등 주요 수출(수입)품의 교역가격 하락 및 교역량 감소에 의한 것에 기인 (KOTRA, 「2015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5년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권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와 관계개선 가능성 모색 전망

-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
 - 경제성과 측면에서도 전체 경제규모의 증가폭이 감소했으며, 전체무역액은 증가했지만 對中무역의존도가 91%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지난 5년간 정권 승계 및 정치체제 안정화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핵문제를 포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국 新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 있음